

韓國人 生活欲求의 要因構造 및 關聯變因의 影響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Factor Structure of Koreans' Need of Living and
on the Influence of Related Variables

昌原大學 家政學科

講 師 盧 英 男

釜山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助 教 授 鄭 容 璇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Young Nam Roh**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Yong Sun Chung**

< 목 차 >

- | | |
|------------|-------------|
| I. 序 論 | IV. 結果 및 解釋 |
| II. 理論的 背景 | V. 結 論 |
| III. 研究方法 | 參考文獻 |

< Abstract >

This study was designed with the purpose to analyze the bias and the factor structure of Need of Living and to clear the influence of related variables on Need of Living. The Degree of Importance (Di) and of sufficiency (Ds) of 65 indicators which were the constituent components of Need of Living and were extracted from the 51 preceeding studies was estimated by the 1084 samples including 614 urban and 470 rural residents through the questionnaire.

The indicators with higher Di and lower Ds than average were considered to show the high level of Need of Living.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Generally speaking, the level of Di was higher than that of Ds. Specially this was serious in the case of the indicators related with social-economic equity, employment, housing and environment.

2. Di level of the indicators such as physical health, judicial equality, the life of planned expenditure was highest. Specially the equity of income allocation was considered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increase of income or asset itself.

3. Ds level of the indicators such as the life of planned expenditure,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as highest, and that of the use of leisure time, social activity, economic equality and social welfare was lowest.

4. Through the oblique rotation of Factor analysis, 12 factors were extracted (total eigen value 32.663, total variance 50.251%). Specially Factor 1 which was christened as the equality and development of social-economic life was related with 11 indicators and its common variance was 51.68%.

5. The rural residents, the lower income group and the lower educated group, who were told of being under disadvantage and unfair treatment of social-economic status, showed higher sufficiency on the equity of income allocation, the freedom of living and expression, and judicial equality.

6. Generally speaking, the urban residents, the group under 39 years old, the higher educated group had more intensive Need of Living than the other groups.

I. 序 論

사람이 오늘 열심히 일하고 배우는 것은 보다 발전된 내일을 생활을 위해서이다.

Adam Smith는 이같은 人間生活의 發展을 ① 야만한 段階(一次的 段階), ② 富의 段階(二次的 段階), ③ 德의 段階(高次的 段階)로 位階化하였다¹⁾. 이 德의 幸福論에서 말하는 첫 段階는 基本의 生活의 充足을 追求하는 것이고 두번째 段階는 物質의 生活의 充足을, 그리고 세번째 段階는 精神의 生活의 充足을 追求하는 것인데, 세번째 段階인 精神의 生活의 充足이 실현되어야만 福祉生活이 이룩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國家나 社會에서는 미처 세번째 福祉段階에 진입하기도 전에 物質의 生産性 增大를 너무 중요시하고 또 그것을 급격한 속도로 추진하는 데서 많은 社會的, 經濟的 問題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리고 이러한 問題들은 非人間的 要素를, 다시 말해서 보다 人間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逆의 效果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交通難, 住宅難, 犯罪率增加 등의 都市生活問題, 離婚, 家出, 過少費 등의 家庭生活問題, 公害 등으로 인한 生活環境破壞 등*이 代表的인 例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生活向上에 대한 조급한 期待와 그 充足의 미비함에서 오는 좌절감, 그리고 所得分配과 消費生活 및 社會生活의 不平等에서 오는 欲求不滿과 같은 消費者들의 生活에 관련된 欲求問題들이다. 이같은 심각한 欲求問題의 實態把握과 解決方案을 위해 오늘날 研究者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本 研究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現生活段階를 福祉生活進入의 前段階로 간주하고 이 段階에서 발생하는 欲求의 實態를 파악, 분석하여 生活의 바람직한 發展方向을 찾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本 研究는 標本抽出을 통한 조사로 설계되었으므로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의 편중이 완전히 극복될 수는 없다.

II. 理論의 背景

1. 生活欲求

生活(living)이란 사람이 生命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生存으로서의 意味와 삶을 꾸려간다고 하는 生計로서의 意味, 그리고 삶을 꾸려나가는 어떤 方式으로서의 意味를 갖는다²⁾.

한편 欲求(need)는 「좋은 것」 또는 「좋은 상태」(well-being)를 目標로 하는 必要性으로서 어떤 對象(objective)이 「좋은 狀態」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 또는 부족된 것은 무엇이든지 欲求가 된다³⁾. 예를 들면 引擎(objective)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well-

*이러한 現象을 Anomi症이라 하며 이를 나타낼 수 있는 指標를 Anomi Indicator라 한다(富永健一, 社會學 原理, 日本中央公論社, 1986. p 281).

being) 기쁨을 필요로 하면 그것이 곧 欲求이다.

그러므로 生活欲求(need of living)은 生存, 生計, 사람의 方式으로서의 生活이 어떤 「좋은 狀態」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物의 所有와 行動의(心理的) 價値에 관한 主觀的 感情으로서 다소 막연한 概念이고⁴⁾ 選好의 差別은 없다.

生活欲求는 매우 다양하며 研究를 위해서는 類型化가 필요하다. 森本厚吉⁵⁾은 人間의 欲望*(欲求)을 실현시키기 위한 범위를 肉體的 欲望과 精神的 欲望으로 분류하고 다시 精神적 欲望을 ① 必然的 欲望, ② 身分의 欲望, ③ 快樂의 欲望, ④ 奢侈의 欲望으로 분류하였다. 肉體的 欲望은 生活의 絶對的 水準에 관한 것임에 비해 精神的 欲望은 生活의 相對的 標準에 관한 것으로서 社會의 關係에 의해 변화하는데, 현대 社會에서의 人間欲求에 관한 문제는 주로 이 相對的 標準으로서의 精神的 欲望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Bradshaw⁷⁾는 人間의 欲求類型을 ① 規範的 欲求(normative need), ② 感知된 欲求(felt need), ③ 表出된 欲求(expressed need), ④ 比較 欲求(comarative need) 등 4가지 次元으로 분류하였다. ①은 社會的인 價値 또는 社會的 規範的 標準과 관련된 欲求이고 ②는 個人 자신의 內的인 欲求를 의미하며, ③은 실제로 個人의 欲求가 現在化한 것으로서의 이 欲求는 특히 個人의 환경적 속성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 ④는 같은 部類에 속하며 같은 物質을 가지고 있는 集團이 같은 서어비스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로서 相對的인 比較 또는 平等의 視覺에 관련된 欲求이다.

丸尾直美등⁸⁾은 個人이 社會에 대해 가지는 欲求를 ① 社會的 均衡의 欲求**, ② 安全과 保障에 대한 欲求***, ③ 公正에 대한 欲求****, ④ 參與의 欲

*경제학에서 본 欲望(want)은 '不足을 느끼는 感覺'을 나타내는 주관적 심리상태로서⁶⁾, 選好의 差別이 없는 막연한 慾心과 상대적 표준에 대한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차원에서 欲求와 유사한 개념으로 본다.

**生活關聯의 個人消費財나 公共財의인 財貨나 서어비스(社會資本, 施設, 社會保障등)의 공급에 있어서 相對的인 差異(社會的 不均衡)의 해소에 대한 欲求.

***어느정도 풍족한 생활이 되면 안정되고 평온하게 살기를 바라는 欲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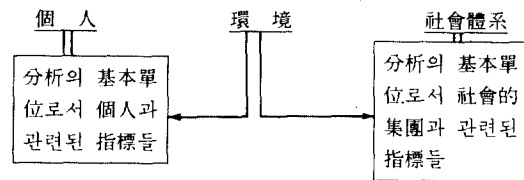
求*****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欲求들은 社會의 物質的 側面이 풍부해지면서 발생하는 高級化에 따른 個人의 欲求가 社會心理的으로 合致되어 노출된 것이다.

이러한 欲求들이 充足되지 못했을 때 人間이 가지는 心的 狀態를 欲求不滿이라고 부른다. 이 欲求不滿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면 個人의 心身에 장애를 주고 家庭과 社會에 禍를 일으킬 수 있다.

이 欲求의 充足에는 經濟發展이 前提된다. 基本的, 物質的 欲求의 充足은 곧 經濟行爲의 目標이다. 그러나 성숙한 社會가 되면 그 이상의 人間行動을 催급한다. Galbraith⁹⁾도 經濟成長의 良否(최고의 目標)는 얼마나 생산하는가에 있지 않고 人間의 生活이 즐겁고 健甞만 하기 위해서(人間生活의 質的 改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 판단된다고 하였다. Liu도¹⁰⁾도 健康한 經濟(healthy economy)는 다수의 사람들도 하여금 그들의 欲望과 幸福을 基本的, 物質的 滿足水準 이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經濟行爲의 성공없이 는 人間欲求의 充足은 불가능하며 經濟行爲의 成功自體가 人間欲求의 實現이라 할 수 있겠다.

2. 生活欲求에 관련된 變因

美國의 Stanford Research Institute는 1969년 바람직한 生活의 質的 分析을 爲해 個人, 環境 및 社會體系의 關係를 (圖 1)과 같이 모형화하였는데, 이 모형은 그 후 많은 社會指標나 生活의 質 研究에 있어서 基本的인 概念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¹¹⁾.



[圖 1] 個人, 環境, 社會體系 間的 關係

****정보가 풍부해지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 欲求는 강하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게되면 동시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발전하게 되며 사람들은 主體性과 개성의 존중을 바라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위로부터 규정된 生活에 대해서 反抗하고 자신과 관계있는 문제의 결정에 참가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個人과 社會體系에 영향을 미치는 環境에 대하여 Deaton¹²⁾은 環境變數는 반드시 行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年齡, 子女數, 教育, 社會의 地位(職業과 所得), 居住地域, 宗教등의 變數가 개인과 집단의 欲求나 選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정수¹³⁾, 문숙재¹⁴⁾, 李基榮¹⁵⁾ 등이 그와 같은 環境變數와 主觀的인 生活의 質의 유의적 관계를 조사연구 하였고, 日本의 鮑戶弘¹⁶⁾도 住民欲求의 地域差를 인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環境變數중 비교적 사용빈도가 많은 居住地域, 性, 年齡, 所得, 教育(學歷)變數를 채택하고자 한다.

3. 生活欲求의 測定指標

[圖 1]에서 環境에 의해 영향을 받는 個人과 社會體系의 特性은 指標(indicators)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고 설명된 바와 같이 生活欲求의 測定도 全般的인 生活을 조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指標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指標란 보통은 잘 관찰할 수 없는 어떤 事物(things)의 特性(다른 事物과 유사하거나 차이가 있는)에 대한 값을 正 또는 負로 표시하는 것¹⁷⁾이며 現象을 數量化하여 價値를 부여하는 機能을 가진다.

福祉(welfare)를 生活狀態에 대한 滿足, 不滿足을 척도로 하여 나타낼 수 있다면 生活欲求가 充足되어 不滿足이 제거된 상태를 福祉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丸尾直美¹⁸⁾은 이 福祉를 측정하는 3가지 접근 방식을 다음과 같이 圖式化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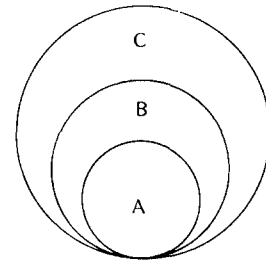
그림에서 A는 經濟福祉指標*, B는 社會指標**, C는 福祉意識指標***이다. C는 A와 B의 客觀的 指標****에 대한 主觀的 評價指標이다. 이 主觀的 評價指標은 "높은-낮은(high-low)"式으로 된 질문지의 自己記入式 점수에서 정보를 얻는 것인데, Rogers와 Converse²²⁾는 이러한 主觀的 評價는 指標에 人間的 意味나 生命力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生活欲求測定指標는 바로 이 主觀的 評價指標에 속하며 C의 福祉意識指標이다. 즉 經濟·社會環境의 諸局面의 事實的 水準 또는 달성된 정도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이 主觀的·心理的으로 評價하는 것을 말한다.

生活欲求의 정도는 각 指標에 대한 滿足度나 幸福度 또는 重要度나 充足度의 정도로 측정될 수 있다. 滿足度란 指標로 조작될 수 있는 生活이 자신의 기대에 비하여 달성된 정도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정도로서 意識調査의 中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滿足度의 結果로부터 期待水準에 대한 不滿足度를 추정할 수 있다.

幸福度는 指標로 조작될 수 있는 物質的, 精神的 生活의 欲求가 충족된 상태로서 한 부문 한 부문마다의 滿足이 集積되어 이루어지며 따라서 幸福度의 最近似值는 滿足度이다²³⁾.

日本 經濟企劃廳國民生活局²⁴⁾은 每 3年마다 國民의 生活欲求 또는 選好****을 重要도와 充足度로서 측정하고 있다. 重要度는 指標의 比重이 福祉水準이나 生活水準의 달성에 어느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圖 2] 福祉測定の 세가지 접근 방식

*經濟指標이며 物的指標 또는 貨幣的 指標라고도 하고 화폐적 표시가 가능한 플로우(flow)량으로서 國民所得 또는 國民配分이 가장 우선적이며 되는 예이다.

**社會指標란 社會生活에 내포된 質을 평가하는 것¹⁹⁾ 또는 社會環境의 諸局面에 대하여 정교하고 이해하기 쉽고 균형감 있는 판단을 하게 하는 직접적이고 표준적인 統計²⁰⁾이며, 다른 條件이 같다면 이 통계가 옳은 방향으로 변화할 때 社會의 모든 것이 향상되며 사람들은 보다 잘 살게 된다.

***福祉指標는 生活滿足度나 充足度 같은 主觀的·心理的 要因과 財, 餘暇, 公共서비스등과 같은 客觀的·社會的 要因이 포함되는데²¹⁾ 福祉意識指標는 前者와 관련된다.

****客觀的 指標는 "선택으로 인한 사망률"과 같이 社會現象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말한다.

*****生活欲求와 選好(perference)의 차이는 生活欲求가 어떤 "좋은 상태(福祉)"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모두 欲求되는데 반해, 選好는 그 必要性의 정도에 차별을 두어 優先順位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가에 대한 評價이며 個人間에 어느정도 공통된 價値基準으로서 중요하고 欲求度(選好度)의 크기를 좌우하는 基本이다.

한편 充足度는 指標로 조작된 生活水準이나 福祉水準이 一定水準에 도달하였는가에 대한 評價이며, 이 評價로부터 해당 指標에 대한 未充足度を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欲求不滿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生活欲求의 程度를 重要도와 充足度を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며, 重要도가 높고 充足도가 낮을 경우 指標에 대한 欲求不滿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²⁴⁾.

富永健²⁵⁾은 指標가 구비해야 할 중요 기준으로서 ① 主民福祉의 向上이나 下落到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는 關係性, ② 指標가 속한 福祉領域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代表性*, ③ 가능한 한 대다수 住民에 대해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包括性**, ④ 時系列的으로 住民의 福祉에 관련되어야 한다는 恒常性을 들었다. 이외에 生活全般을 균형있게 측정할 수 있는 多樣性이나 理論的으로 인정되고 科學的 方法에 의거하는 妥當性도 확보되어야 한다.

4. 研究問題

이상의 理論的 背景을 근거로 하여 설정한 研究問題는 다음과 같다.

- (1) 生活欲求 測定單位로서의 重要도와 充足度は 전반적으로 어떤 경향인가?
- (2) 生活欲求指標의 要因構造는 어떠한 양상인가?
- (3) 生活欲求에 대하여 社會經濟的 變數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I. 研究方法

1. 調查道具

生活欲求測定을 위한 道具는 質問紙로 하였으며 丸尾直美의 福祉測定의 3가지 어프로치(圖 1)에 합당하고 富永健²⁶⁾ 및 Liu의 指標基準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또 Andrews²⁷⁾가 제시한 意識調查의 限界

*, **Liu²⁶⁾는 이 같은 指標의 性格을 각각 融通性(adaptability), 適用性(application)이라 하였다.

點***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段階로 作成하였다.

(1) 1段階: 指標의 羅列: 先行研究중 生活의 質(Quality of Life)研究 13편^{28~40)}, 生活水準(Level of Living)研究 12편^{41~52)} 福祉水準(Level of Welfare)研究 7편^{53~59)}, 社會指標(Social indicator)研究 14편^{60~73)}, 기타 部門別 指標研究 5편^{74~78)} 등 총 51편의 研究에서 사용된 指標들(主構成要素, 副構成要素 및 細部構成要素)을 대상으로 사용빈도수를 분석하였다.

(2) 2段階: 指標의 選定: 나열된 총 106개의 指標중에서 사용빈도수가 6이상인 指標 72개를 추출하였고 다시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指標 13개를 탈락 또는 결함시켜 59개의 指標를 선정하였다. 여기에 사용빈도수는 5이하이나 開途國으로서의 生活를 잘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5개 指標[負債, 自家用乘用車, 精神的健康, 醫療保險, 豫算生活(家計簿記入)]와 우리나라 家計의 큰 압박요인 중 하나라고 인정되는 家庭行事費用(冠婚喪祭費用)⁷⁹⁾을 추가하여 총 65개의 指標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65개 指標와 그 사용빈도수가 <表 1>에 제시되어 있다.

(3) 3段階: 問項作成을 위한 指標配定: 선정된 65개 指標를 사용빈도수와 관계없이 열거하여 目錄表를 작성하고 각 指標에 번호를 붙인 뒤 숫자카드를 만들어 單純無作爲抽出의 方法으로 問項番號의 順序를 정하였다.

(4) 4段階: 指標의 尺度化: 각 指標를 보다 구체적인 文章으로 구성하였고 65개 指標의 重要도와 充足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重要도는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⑤ 매우 중요하다」까지, 充足도는 「① 전혀 충족되어 있지 않다」에서 「⑤ 아주 충족되어 있다」까지 5단계로 加重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社會經濟的 物性を 파악하기 위하여 學歷, 年齡, 居住地域, 性, 職業, 所得, 居住住宅類型 등 7개 變因을 선정하였으며, 學歷, 年齡, 職業

***Frank Andrews는 意識調查의 限界點으로서 ① 指標의 妥當性 문제(사람들이 生活構成要素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을 가능성에서 오는 문제), ② 의식조사에 대한 解釋의 문제, ③ 指標의 完全性 문제, ④ 指標의 流用性문제를 들었다. (예, 이웃과 친근한 것→이웃과 가까이 지내는 것, 물가가 상승하는 것→물가를 억제하는 것 등)

<表 1> 65개의 指標의 使用頻度數

번호	지 표 명	사 용 빈도수	사용율 ¹⁾ (%)
1	소득(수입)의 크기	29	56.9
2	주택넓이(1인당넓이, 실당인원) ²⁾	29	56.9
3	교육수준 고도화(진보된 지식)	29	56.9
4	주거지역근접, 편리성	29	56.9
5	범죄사고로 부터의 안전	28	54.9
6	주거생활의 쾌적함(공해, 오염)	27	52.9
7	주변물적, 자연환경(도로, 녹지, 숲, 경관)	25	49.0
8	여가시간증대(노동시간단축)	24	47.1
9	고용, 실업률	24	47.1
10	육체적 건강유지(질병)	22	43.1
11	교육환경(시설, 교원수)	21	41.2
12	문화예술활동(참여, 시설보존)	21	41.2
13	칼로리 섭취	20	39.2
14	육어류(동물성단백질섭취)	19	37.3
15	기초교육의 충실(초, 중, 고)	18	35.3
16	의료시설, 인력수준	18	35.3
17	주택의 기본적인시설	18	35.3
18	저축, 자산증가	17	33.3
19	여가활동 참여(상태, 빈도)	16	31.4
20	교통, 통신발달	16	31.4
21	주택소유유형(자가율)	16	31.4
22	사회보장제도, 복지시설 확립	16	31.4
23	재해로부터의 안전	15	29.4
24	근로생활수준(작업환경 조건)	15	29.4
25	이웃과의 친근	14	27.5
26	장수하는 것(평균수명)	14	27.5
27	보건위생적 환경	14	27.5
28	상하수도보급	14	27.5
29	병원이용정도	13	25.5
30	인구문제	12	23.5
31	스포츠활동	12	23.5
32	소득분배의 공평함	12	23.5
33	빈곤층(poverty)	12	23.5
34	법적인 공평함	12	23.5
35	전화, TV, 컴퓨터의 보급 ³⁾	11	21.6
36	과학기술의 발전	11	21.6
37	부부의 결합생활상태	11	21.6
38	이동도(mobility)	10	19.6
39	영유아사망율	10	19.6
40	사회활동참가	10	19.6
41	국내외여행	9	17.6
42	생활과 표현의 자유	9	17.6
43	소비수준	9	17.6
44	교육비 지출	9	17.6
45	주택공급 및 투자	9	17.6
46	효율적시간사용 ⁴⁾	8	15.7
47	음식비지출	8	15.7
48	주택코스트(건축비, 자가, 임대, 전세)	8	15.7
49	가족구성원의문제(언령, 가족수, 자녀수)	8	15.7
50	주거생활비지출	7	13.7
51	자기계발활동	7	13.7
52	불가(인플레이션) 억제	7	13.7
53	의복수준	6	11.8
54	의료비지출	6	11.8
55	부모자녀관계	6	11.8
56	합리적상품구매활동(상품정보)	6	11.8
57	피아노, VTR, 칼라 TV, 전축 ⁵⁾	6	11.8
58	여가비용지출	6	11.8
59	신문, 시적, 잡지구독	6	11.8
60	부채(빚) 억제	4	7.8
61	정신적건강(불안, 스트레스)	4	7.8
62	자가용승용차	3	5.9
63	의료보험수혜	3	5.9
64	예산생활(기계부기입)	2	3.9
65	관혼상제비용		

註1) 사용율(%) = (사용빈도수/51) × 100

2) 주택넓이 指標는 居住水準으로 함(宮崎禮子, 家政經濟論, 朝倉書店, 1983, 104-105).

3) 35번의 전화, TV, 컴퓨터보급指標는 情報化水準으로 함(吉田正昭編, 都市環境と住まいの心理學, 彰國社, 1980, 248-249)

4) 효율적시간사용(46) 指標는 餘暇時間사용과도 관계가 깊으나 餘暇時間(자유시간) 외의 구속적시간이나 時間當生産性으로도 측정될 수 있다(Meena Acharya)⁹⁶⁾.

5) 피아노, VTR, 칼라 TV, 전축등의 普及指標는 選擇的 支出로 함.

(선택적지출/생계비지출) × 100 = 生活度係數, 이것은 生活水準向上을 나타내는 좋은 指標중의 하나이다(暉峻淑子生活經濟論, 時潮社, 1980, 280-282).

6) 61~64번은 사용빈도수가 6미만인 指標중 開途國의 國家生活 및 家庭生活水準을 잘 나타내는 指標라고 생각되어 추가한 것임.

은 5단계로 범주화하였고 所得은 9단계로, 나머지 變因은 2단계로 범주화하였다.

調査道具의 妥當度와 信賴度를 높이기 위해 문항에 대한 5인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1987. 5. 6~5. 8 사이에 부산과 남해에서 事前調査를 하였다. 두 지역에 각 60부씩 120부를 배부하여 116부(부산 56부, 남해 60부)가 회수되었는데, 결함있는 응답지를 제외한 49부와 59부, 총 108부가 예비분석에 사용되었다. 平均, 標準偏差, 응답범주별 頻度數 및 辨別係數 (=각 문항의 平均點數와 총 문항 平均點數간의 相關係數)를 重要度와 充足度別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重要度는 응답자들의 분포가 주로 「④ 약간 중요하다」와 「⑤ 매우 중요하다」에 편중되어 正規分布를 이루지 못하고 대부분 4.0점 이상의 높은 平均點을 나타내었으므로 要因分析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없음이 판명되었다.

반면 充足度는 平均點이 3.0~3.5 사이에 주로 분포되었고 응답자 度數分布도 대체로 正規分布를 이루어 要因分析을 위한 좋은 條件은 충족되었으나 문항의 判別力이 불량하다고 할 수 있는 判別係數 .20 이하의 문항이 2개 추출되었다(이웃과의 親近, 物價抑制). 이 두 문항을 포함하여 生活水準向上에 대해 逆關係의 또는 否定的으로 표현된 문항을 肯定的 또는 완곡한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예, 이웃과 친근한것 → 이웃과 가까이 지내는것, 물가가 상승하는것 → 물가를 억제하는것 등.)

2. 調査對象 調査期間 및 資料處理

調査對象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生活欲求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재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子女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成人男女로 하였으며 標集方法은 三段階集落抽出法을 사용하였다. 都市地域의 경우는 市 → 區 → 學校의 단계로, 農村地域의 경우는 道 → 郡 → 學校의 단계로 표출하였는데, 學校長에게 조사의뢰를 하여 학생들을 통해 질문지를 각 가정에 배부하고 그들의 父母나 이웃의 어른들에게 부탁하여 기입하게 한 뒤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學校長이 學生들을 선정할 때는 저학년과 고학년에 분산하여 되도록 父母들의 연령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調査對象者數는 調査地域(도시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농촌지역은 강원도 평창군,

충남 청양군, 전북 임실군, 경남 남해군)의 家口數에 비례하여 선정하였고 調査는 1987. 5. 25~6. 3. 사이에 실시되었다. 총 1305부(도시지역 720부, 농촌지역 585부)를 배부하여 1084부(도시지역 614부, 농촌지역 470부)가 회수되었다.

자료처리는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연구문제 1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crosstabs로, 연구문제 2의 분석은 Factor-analysis로 처리하였으며 要因分析에 전제되는 문항의 信賴度를 확보하기 위해 事前調査의 결과를 분석하고 응답자분포가 正規分布型을 이룬 充足度得點을 이용하였다.

연구문제 3을 위해서는 T-test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社會經濟的인 標準에 도달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의 相對的 比較를 명료히 하기 위해서이다.

IV. 結果 및 解釋

1. 調査對象者들의 特性

調査對象者들의 社會經濟的 特性은 <表 2>와 같다. 學歷은 高卒이 42%로 가장 많고 다음이 專門大와 大卒로서 31%에 이른다. 中卒이하는 모두 27%로서 가장 적은 비율이나 이들의 평균 教育水準은 대체로 높은 편(高卒정도)이라 할 수 있겠다. 家長의 職業에서는 事務職이 63%로 가장 많고 다음이 管理職, 販賣熟練職, 非熟練職, 專門職의 순서로 되어 있다. 따라서 調査對象者들의 職業의 地位는 中流, 즉 中產層으로 대표될 수 있겠다.

年齡層은 30代와 40代가 45%와 46%로 비슷한 分布率을 보이는데, 年齡特性이 이렇게 편중된 것은 調査對象者를 抽出할 때 현재 家庭生活을 하고 子女를 學校에 보내고 있는 年齡層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6년의 全國統計值를 보면 30代와 40代가 50%를 넘으므로²⁾ 이 年齡層가 全體의 意識의 傾向을 주도하는 것은 두 資料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月平均所得은 어느 한 범주에 편중되지 않고 응답자들이 고루 분산되어 있어 所得差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4만원 이하 所得層의 4%와 96만원 이상 9%를 비교하면 所得絕對額 크기의 倍率은 高所得層이 6배 이상, 分布率은 2배 이상 많아서 生活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所

<표 2> 調査對象者의 社會經濟的的特性

변 인		범 주					計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學歷 ¹⁾		국졸 이하	중 학 졸	고 교 졸	전문대 졸	대졸 이상	1083(1) 100
	N %	80 7	221 20	452 42	73 7	257 24	
家長의 ²⁾ 職 業		비숙련직	판매·숙련직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1082(2) 100
	N %	90 8	102 9	687 63	169 16	34 3	
年 齡		29세 이하	30~30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080(4) 100
	N %	17 2	491 45	497 46	72 7	3 0	
所得 ²⁾ (月平均)		15만원 이하	16~25만원	26~35만원	36~45만원	46~55만원	1082(2) 100
	N %	48 4	105 10	220 20	199 18	157 15	
		56~65만원	66~75만원	75~95만원	96만원이상		
	N %	102 9	76 7	75 7	100 9		
家族數		4명이하	5~6명	7~8명	9~10명	11명이상	1084 100
	N %	401 37	536 49	111 10	29 3	7 1	
性 別		① 남 자		② 여 자		B/A	1084 100
	N %	560 52		524 48		107.3	
居 住 地 域		① 농 촌		② 도 시		B/(A+B)	1084 100
	N %	470 43		614 57		57	

註 1) 중되는 졸업과 같이 간주함

2) 資料의 統計處理上 職業의 地位와 收入을 고려한 順位化가 필요하므로 이 順位化를 시도한 이상백⁸⁰⁾의 및 고희일⁸¹⁾ 분류를 참고하여 재분류하였음.

① 非熟練職=노점, 복덕방, 일일노동자, 외관원

② 販賣, 熟練職=점원, 판매원, 사무원, 요리사, 소작농, 목수, 기계공, 선원, 재봉공.

③ 事務職 =은행원, 회사원, 교사, 기사, 상점주인, 자영농, 군위관급, 기관장급신원.

④ 管理職 =기업의 부장급, 건축기사, 교장, 관청의 과장, 중소기업주, 약방, 목장주, 군 영관급,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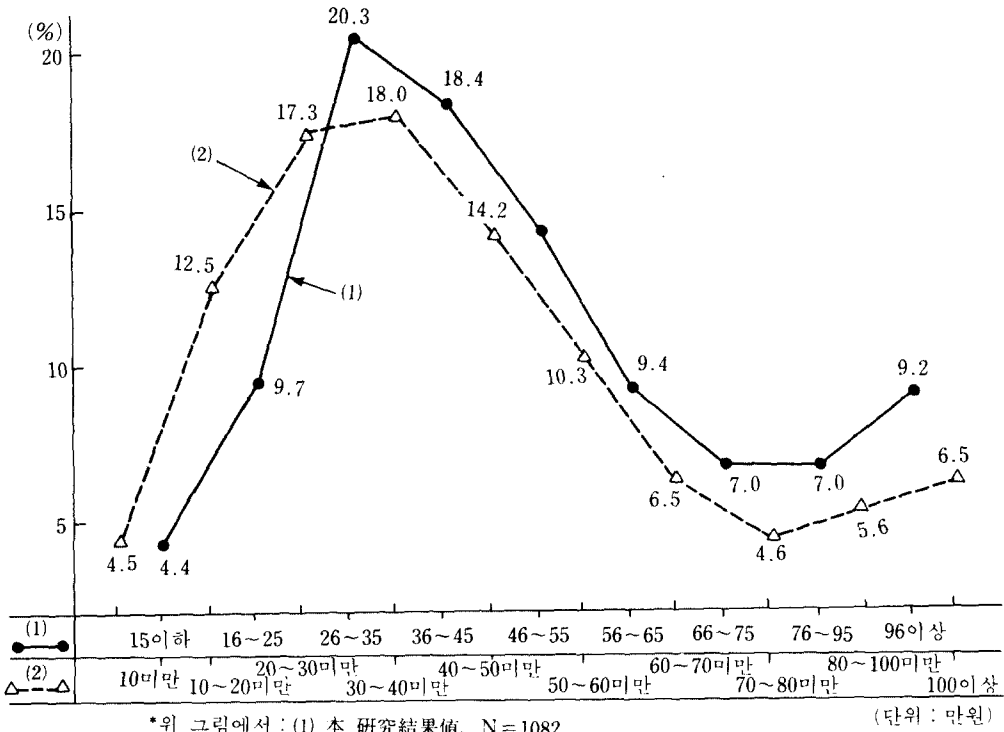
⑤ 專門職 =대기업주, 중역, 장·차관급, 국회의원, 교수, 의사, 군장성급

무직은 ① 非熟練職에 포함시켜 처리하였음.

3) 1,000원 단위이하는 반올림하여 응답하게 하였음.

得의 兩極化된 現象이 本調査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所得의 平均點인 4.732점은 범주 ④ 36만~45만원(중간점=40만원)과 범주 ⑤ 46만~55만원(중간점=50만원)을 고려할 때 調査對象者들의

平均所得이 473,000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985년 현재 全國家口主 月平均所得 463,000원⁸³⁾과 유사하다. 또 月平均所得階層別로 家口分布率을 비교하면 [圖 3]과 같다. 階層區分의 基準이 다소 다르기는 하



* 위 그림에서 : (1) 本 研究結果值, N=1082

(2)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86, 79

1986, 6월 현재 조사결과임, N=17,000

(단위 : 만원)

[圖 3] 月所得階層別 家口分布率 比較

지만 分布曲線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本 研究의 調査對象者들은 所得特性面에서 매우 신빙성 있는 代表性을 가진것으로 해석된다.

性別 變因에서는 男子가 女子보다 약간 많으나 거의 반반에 가까운 分布이다. 居住地域別로는 전국 도시, 농촌 거주자 비율*에 따라 都市居住者들이 農村居住者들보다 다소 많도록 표집되었다. 家族數는 5-6명이 49%로 가장 많고 4명이하가 37%, 7-8명이 10%에 달하여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2. 指標로 본 生活欲求의 경향

生活欲求는 指標별로 重要度와 充足度를 측정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評價過程은 Bauer⁸⁴⁾에 의하면, 社會의 어떤 部門이 중요하며 또 그 部門에 대하

여 얼마나 충족되어 있는가에 대해 社會的인 一致를 구하는 것이다.

平均點으로 본 指標의 重要度와 充足度順位가 <表 3>에 제시되어 있다. 또 <表 4>에는 上, 下位 각 10 개씩 추출되어 있다. 먼저 重要度を 가장 높게 평가 받은 指標는 肉體的健康維持, 法的인 公平함, 豫算生活, 父母子女關係의 순서인데 대체로 健康, 人權, 家計, 家族의 基本要素들이다.

한편 肉體的健康의 重要度에 비해 精神的健康의 重要度는 그리 높지 않았다(전체순위=26위). 現代 產業社會에서 특히 그 重要性이 강조되고 있는 이 指標는 人間이 自然性*과 社會性**을 확보함으로써 얻어

*自然性: 自然으로서의 人間이 自然의 일부로서 존재할 수 있는 環境.

**社會性: 社會的 動物로서의 人間이 感情과 理性을 가진 人間으로서 相互共同으로 살아갈 수 있는 社會的 環境.

*1985년 현재 全國都市人口比率은 65.4%(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지표, 1986, p 58)

<表 3> 全體的인 重要도와 充足度の 平均 및 順位

지 표	중 요 도		충 족 도		지 표	중 요 도		충 족 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1. 스포츠 활동	3.234	64	2.969	42	34. 보건위생적 환경	4.669	11	3.201	23
2. 소득(수입) 증가	4.285	41	3.109	32	35. 재해로부터의 안전	4.656	13	3.212	22
3. 육어류 섭취	3.830	55	3.465	5	36. 교육환경	4.682	9	3.129	27
4. 의료시설, 인력수준	4.667	12	3.125	29	37. 상하수도 보급	4.557	18	3.238	17
5. 범죄 및 사고의 안전	4.762	5	3.186	24	38. 법적인공정함	4.781	2	2.901	46
6. 사회활동 참여	3.663	59	2.763	58	39. 여가비용 지출	3.324	63	2.722	61
7. 교육비 지출	4.413	30	3.309	12	40. 과학기술의 발전	4.577	14	3.128	28
8. 고용·실업 문제	4.406	31	3.030	38	41. 주택소유유형	4.288	40	2.960	43
9. 부부의 결혼생활 상태	4.303	36	3.085	34	42. 정신적 건강	4.475	26	2.881	50
10. 예산생활	4.781	2	3.911	1	43. 빈곤층	4.094	50	2.872	51
11. 교통, 통신의 발달	4.565	16	3.681	2	44. 불가역세	4.573	15	3.125	29
12. 문화, 예술활동	4.251	42	2.918	45	40. 효율적 시간활용	4.298	38	3.105	33
13. 승용차 보급	3.507	61	2.852	52	46. 주거생활의 쾌적함	4.708	8	2.941	44
14. 교육수준의 고도화	4.464	27	3.437	6	47. 부채억제	4.528	22	2.765	57
15. 합리적 상품구매	4.300	37	2.994	39	48. 육체적 건강 유지	4.798	1	3.402	8
16. 저축·자산증가	4.463	28	3.044	36	49. 정보화수준	4.178	45	3.233	19
17. 인구문제	3.116	65	2.732	60	50. 주거지역 근접·편리성	4.390	32	3.224	20
18. 주택의 기본시설	4.324	35	3.309	12	51. 의료보험가입	4.507	24	3.249	16
19. 신문, 서적, 잡지 구독	4.194	44	3.220	21	52. 가족구성문제	3.931	53	3.237	18
20. 음식비 지출	3.480	62	3.042	37	53. 영유아사망률 감소	4.168	47	3.637	4
21. 이웃과의 친근	4.109	49	3.137	26	54. 여가시간 증가	3.970	52	2.882	49
22. 생활과 표현의 자유	4.446	29	3.152	25	55. 칼로리 섭취	4.292	39	3.324	11
23. 근로생활 수준	4.482	25	2.987	40	56. 사회복지·보장제도	4.551	19	2.681	62
24. 주거광열비 지출	3.957	53	3.124	31	57. 이동도(mobility)	4.532	21	2.534	63
25. 변원이용 정도	4.721	7	3.339	10	58. 소득분배의 공평	4.673	10	2.429	64
26. 자기계발 활동	4.223	43	2.885	48	59. 여가활동 참여	4.167	46	2.820	56
27. 부모자녀관계	4.771	4	3.664	3	60. 소비수준	4.382	33	2.835	53
28. 장수하는 것	4.544	20	3.420	7	61. 주택코스트	4.007	51	2.736	59
29. 가정행사 비용	3.790	57	3.052	35	62. 선택적 지출	3.807	56	3.253	15
30. 의복수준	3.694	58	3.304	14	63. 주변자연환경	4.526	23	2.825	54
31. 주택공급 및 투자	4.565	16	2.823	55	64. 의료비 지출	4.360	34	2.977	41
32. 기초교육의 충실	4.726	6	3.362	9	65. 거주수준(주택넓이)	4.137	48	2.887	47
33. 국내외여행	3.588	60	2.393	65					

지는데⁸⁵⁾,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指標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 같다.

또한 全體 重要度評價에서 所得增大, 資産增加 指標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며(각각 41위와 18위), 따라서 所得과 資産 그 자체의 크기보다는 그의 分配上的 公平함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重要度順位가 특히 낮은 指標는 人口問題, 스포츠

活動參與, 餘暇費用支出, 飲食費支出 및 승용차보급이다. 대체로 家庭生活에 직접적 관련이 적거나 여유 있는 풍족한 생활에 관련된 것들이다. 人口問題의 重要性 認識이 극히 낮은 것은 調査對象자들이 우리나라의 높은 人口密度가 經濟發展 및 福祉生活 달성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充足度順位가 가장 높은 것은 豫算生活, 交通

<표 4> 重要도와 充足도가 높은 指標와 낮은 指標

구분	지표 순위	중요도	충족도
상위 10순위	1	육체적건강유지 (4.798)	예산생활 (3.911)
	2	+법적 [*] 공평함 (4.781)	교통통신의발달 (3.681)
	3	+예산생활 (4.781)	부모자녀관계 (3.664)
	4	부모자녀관계 (4.771)	영유아사망율감소 (3.637)
	5	범죄·사고의 안전 (4.762)	육어류섭취 (3.465)
	6	기초교육실충실 (4.726)	교육수준의고도화 (3.437)
	7	병원이용정도 (4.721)	장수하는것 (3.420)
	8	주거생활의 쾌적함 (4.708)	육체적건강유지 (4.402)
	9	교육환경 (4.682)	기초교육의충실 (3.362)
	10	소득분배의공평함 (4.673)	병원이용정도 (3.339)
하위 10순위	56	선택적지출 (3.807)	여가활동참여 (2.820)
	57	가정행사비용 (3.790)	부채억제 (2.765)
	58	의복수준 (3.694)	사회활동참여 (2.763)
	59	사회활동참여 (3.663)	주택코스트 (2.736)
	60	국내외여행 (3.588)	인구문제 (2.732)
	61	승용차보급 (3.407)	여가비용지출 (2.722)
	62	음식비지출 (3.380)	사회복지보장제도 (2.681)
	63	여가비용지출 (3.224)	이동도(mobility) (2.534)
	64	스포츠활동참여 (3.134)	소득분배의공평 (2.429)
	65	인구문제 (3.116)	국내외여행 (2.393)

*위 表中에서 :

- () 안 수치는 평균점임
- +표가 있는 지표들은 평균점은 같으나 ④ ⑤ 범위 분포율의 차이로 순위화 된 것.

통신의 發達, 父母子女關係 등의 順으로서 대체로 家計, 家族, 交通에 關連된 것들이며 그외에 保健衛生과 教育의 充實部門에 對한 充足도가 높다. 이 指標들은 重要度에서도 높은 順位를 차지했다.

充足도가 가장 낮은 指標는 國內外旅行, 所得分配의 公平, 移動度, 社會福祉·保障制度 및 餘暇費用

支出의 順인데, 대체로 餘暇 및 經濟的 社會的 平等에 關連된 것들이다.

餘暇生活에 關連된 指標들의 充足도가 낮게 평가된 것은 실제로 所得 및 勞動時間과 직접적 關連이 있겠으나 최근의 레저-붐이 高級化, 誇示化 되어감에 따라 餘暇觀이 지나치게 貨幣志向的으로 변화해간다는 점⁸⁶⁾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다. 또 이 指標들에 對한 重要도와 充足도가 함께 下位에 속한 것은 아직은 우리나라사람들의 欲求不滿對象이 아님을 의미하나 社會的, 經濟的 平等과 福祉에 關連된 指標들은 重要도는 매우 높고 充足도는 매우 낮아 가장 큰 欲求不滿의 對象이라고 생각된다. 이 部門은 個人的 努力보다는 公的인 推進에 의해 실현될 수 있으므로 政策的 次元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3. 生活欲求의 要人構造

1) 問題의 信賴度 分析

각 문항별 充足度の 平均點에 있어서 대부분 問項이 2.5~3.5점 사이에서 고른 得點을 하였고, 標準偏差가 1.0 이상인 問項이 10개 있었으나 대부분 1,000 근처였으며, 問項의 각 범주별 度數分布에서도 4개의 問項만이 범주 ④를 중심으로, 그리고 나머지 全問項은 범주 ③을 중심으로 正規分布된 결과를 보였다.

內의 一慣性을 나타내 주는 辨別度係數에서는 .20 이하의 問項은 하나도 없었으며 .40이상(아주 우수한 問項의 基準)은 58개(89.2%)로서 事前調査時의 44개(67.7%)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양호한 辨別力을 가진 것으로 판정되었고 65개 全問項의 辨別도는 0.1% 수준에서 유의적이었다.

2) 要因分析

Deaton⁸⁷⁾은 福祉水準 즉 欲求充足의 정도를 測定하는 것은 經濟的 條件의 向上을 위한 序曲(prelude)이며 調査作業(survey work)에서는 ① 問項의 現在狀態에 對한 評價뿐만 아니라 ② 改善이 이루어질 경우 영향을 받아야 하는 因子들(factors)의 測定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②의 作業을 先行하여 欲求深化의 정도와 가장 改善의 필요성이 큰 순서로 要因을 추출한 다음 그 要因別로 현재상태의 문제점을 準據集團理論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65개 生活欲求指標의 充足度得點을 이용하

요 인 지	표	부하량	요 인 명	공통변량 ² %	요 인 지	표	부하량	요 인 명	공통변량		
요인 1 =	31. 주택공급및투자	.4591	사회경제생활의 불평등발전	51.69	요인 5 =	2. 소득(수입) 증가	- .4413	가정경제의 안정성	4.99		
	40. 과학기술의 발전	.4169				6. 사회활동참여	- .4995				
	42. 정신건강(불안스트레스)	.4846				10. 예산생활(가계부기입)	- .4888				
	43. 빈곤층(저소득층) 감소	.5319				16. 저축·자산증가	- .4945				
	44. 물가(인플레이션) 억제	.5586				49. 정보화수준	.4092				
	45. 효율적시간사용	.4879				50. 주거지역근접·편리성	.4913			생활의 편리성 및 가족	4.03
	47. 부채(빚)의 억제	.4327				52. 가족구성문제	.4486				
	56. 사회복지·보장제도 확립	.4597				53. 영유아사망율감소	.4643			이웃생활의 근접성	3.62
	57. 이동도(mobility)	.4262				21. 이웃과의 친근	- .4643				
	58. 소득분배의 공평	.5733				22. 생활과 표현의 자유	- .4550				
요인 2 =	60. 소비수준	.5035	가족의 필요의 생활	9.63	요인 8 =	41. 주택소유형(자가용)	- .5954	醫 療 惠 澤	3.51		
	3. 육아류(통물성단백질) 섭취	.4954				25. 병원이용정도	.5536				
	7. 교육비지출	.4975				51. 의료보험수혜	.5907				
	18. 주택의 기본시설	.5819				64. 의료비지출	.5544				
	19. 신문서적잡지의 구독	.5807				5. 범죄·사고로부터의 안전	.6585			雇 傭 · 安 全 部 門	3.30
	20. 음식비지출	.4203				8. 고용·실업문제	.5478				
요인 3 =	24. 주거광열비지출	.4663	交通·文化 生 活	6.11	요인 9 =	23. 근로생활수준	.4996	住 宅 및 周 邊 生 活 環 境	3.00		
	55. 칼로리섭취	.4951				38. 범죄인공경험	.5047				
	4. 의료시설·인력수준	.4856				46. 주거생활의 쾌적함	- .5854				
	11. 교통·통신 발달	.4769				54. 여가시간증대	- .4326				
요인 4 =	12. 문화예술행동	.5421	保健衛生 及 教 育 的 環 境	5.22	요인 10 =	61. 주택코스트	- .5255	創 造 的 生 活	2.81		
	13. 승용차보급	.4621				62. 선택적지출	- .5281				
	14. 교육수준의 고도화	.4892				63. 주변자연환경	- .6200				
	27. 부모자녀관계	- .4920				65. 거주수준	- .6150				
	28. 장수하는 것	- .4281				26. 자기계발활동	.4573			高 度 的 消 費 生 活	2.09
	32. 기초교육의 충실	- .4746				59. 여가활동참여	.4380				
	34. 보건위생적환경	- .5411				29. 가정행사비용	.4188			高 度 的 消 費 生 活	2.09
	35. 재해로부터의 안전	- .4823				30. 의복수준	.4897				
36. 교육환경	- .5395	33. 구내의 여행	.4221	高 度 的 消 費 生 活	2.09						
37. 상하수도보급	- .4898	39. 여가비용지출	.4986								
48. 육체적건강유지	- .4313										

註 1) 요인부하량 .40 이상 항목
2) 12 요인 중에서 차지하는 설명량

[圖 4] 生活欲求 指標의 要因構造

여 問項間 相關行列表를 구하고 65變量에 대한 主成分分析을 한 결과 固有值가 1.0이상인 主成分이 12개였고 이들의 累積寄與率은 65變量에 대하여 51.1%이었다. 이 12主成分을 그대로 要因數로 채택하였다. 先行研究 分析을 통해서 어떤 變因(指標)들이 어떤 要因에 적재될 것인가를 연역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斜角方法(oblique technique)으로 회전시켰다. 그 결과 12要因의 총고유치는 32.663으로서 全體變量 65.0에 대하여 50.251의 기여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Andrews⁸⁸⁾가 면접법을 통하여 123개 指標들을 12개의 영역으로 구조화시켰을 때 이 12개 영역이 전체 生活의 質 變量중 50~60%를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한 결과와 매우 일치된다.

要因負荷量은 要因과 變數간의 相關關係와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비교적 높은 相關關係의 基準值로서 負荷量 ±.40 이상을 정하고 적재된 變數들을 추출하여 12 要因을 構造化시킨 것이 [圖 4]이다. ±.40 이상의 負荷량을 얻지 못하여 構造에서 제외된 指標는 스포츠活動參與, 夫婦의 結婚生活狀態, 合理的商品購買, 人口問題등 4개이다.

12要因중 要因1이 차지하는 비중은 51.68%나 되므로 生活欲求를 분석할 때는 要因1 및 그에 負荷된 변수들의 분석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 우리社會의 Anomi症중 가장 시급히 改善, 向上시켜야 할 것이 階層間 社會·經濟的 平等感과 發展意識의 실현이라 할 수 있겠다.

要因 1에 精神的健康指標가 포함된 것은 社會·經濟的으로 不公平한 여러 要素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心理的 不安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消費水準指標도 所得의 절대적 크기보다는 相對的 貧困感의 영향이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要因 2는 家庭의 食, 住, 教育部門에서 꼭 섭취해야 할 것과 꼭 支出해야 할 것등 必須的 성격이 강하다.

要因 3은 높은 教育水準의 계층이 승용차이용 및 좋은 병원시설 이용과 같은 여유 있는 文化生活을 영위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現代的 生活樣式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要因 4는 教育的 環境이 잘 이루어진 곳이라면 保健衛生的으로도 청결할 것이라는 相關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로 보인다.

要因 5에서 社會活動參與는 所得資產增加와 직접적 相關성은 적어 보이나 어느정도 經濟的인 安定과 基盤이 확립된 段階에서 所得活動 이외의 社會活動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要因 6의 嬰乳兒死亡率減少는 家族보다는 社會의 性格이 강하지만 嬰乳兒死亡이 곧 家族構成上의 變動을 초래하고 또 病院등 醫療施設에 대한 近接性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이 要因에 적재된 것으로 보인다.

要因 7에서 住宅所有類型이 포함된 것은 自家所有가 아닌 사람들이 주인집등 이웃과의 生活에서 心理的 葛藤을 많이 노출시키는 현실적 측면이 강조된 것 같다.

要因 8의 경우 醫療保險에 가입하게 되어 혜택을 받게 되면 醫療費支出負擔이 감소되어 자연히 病院利用 빈도수가 증가하게 됨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要因 9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法的인 公平한 대우를 僱傭 및 職場生活에서 찾고 있으며 犯罪·事故도 勤勞與件에 관련시켜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要因 10은 住居生活의 質的 水準과 相關된 것으로서 특히 餘暇時間增大指標가 여기에 포함된 것은 住宅空間이 넓고 周邊生活環境이 쾌적할 수록 家庭內에서 여유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아노, 컬러TV, VTR등의 選擇的支出은 이들 장치들이 집안에서의 여가시간을 즐겁게 해주고 住宅이 넓을수록 설치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

要因 11은 일상적인 生活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더 次元 높은 生活를 志向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며, 要因 12는 誇示的인 消費와 관련이 있고 生理的 基本生活이 충족된 후에 실현될 수 있는 高級化志向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상의 12개 要因體系의 妥當化를 위하여 Maslow의 欲求位階, 丸尾直美의 福祉要因⁸⁹⁾ 및 Land와 Spilerman의 生活의 質 構成要因體系⁹⁰⁾와 관련시켜 보았다[圖 5]. 본 연구의 生活欲求要因體系는 日本의 福祉生活要因 및 美國의 生活의 質 要因과 相關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人間欲求와 生活全般에 걸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Maslow 九尾의 欲求体系

Maslow	九尾直美	
	次元	福祉要因
Ⅱ I 生理的 安全的 欲求	基礎的 欲求	① 生存
		② 安全
		③ 健康
Ⅲ 所屬 愛情 欲求	快適的 欲求	④ 自然保全
		⑤ 居住環境
		⑥ 勞動環境
Ⅳ 自己 實現 欲求	高次的 欲求	⑦ 教育, 文化
		⑧ 餘暇
		⑨ 參加及連帶

要因分析結果의 要因体系

- ① 社會經濟生活的 平等 및 發展
- ② 家庭의 必須的 生活
- ③ 交通 · 文化 生活
- ④ 保健衛生 및 教育的 環境
- ⑤ 家庭經濟의 安定性
- ⑥ 生活의 便利性 및 家族
- ⑦ 이웃 生活의 親近性
- ⑧ 醫療 惠澤
- ⑨ 雇傭 · 安全 部門
- ⑩ 住宅 및 周邊 生活環境
- ⑪ 創造的 生活
- ⑫ 高度의 消費 生活

生活週期의 要因体系

- 社會經濟的 要因 (Socioeconomic Factors)
- 社會再生產的 要因 (Socioreproductive Factors)
- 社會政治的 要因 (Sociopolitical Factors)
- 社會文化的 要因 (Sociocultural Factors)

[圖 5] 生活欲求 要因體系의 妥當化.

*「美國生活的 質(The American Quality of Life) 분석에 이용된 것으로 社會學的인 家庭週期가 基礎背景이다.

- 社會經濟的 要因: 社會經濟的 地位와 관련된 要因들의 結合.
- 社會再生產的 要因: 家族과 健康에 관련된 指標들의 結合.
- 社會政治的 要因: 參考과 關聯된 指標들의 結合.
- 社會文化的 要因: 就學 및 文化와 관련된 指標들의 結合.

4. 社會經濟的 變因에 따른 生活欲求의 差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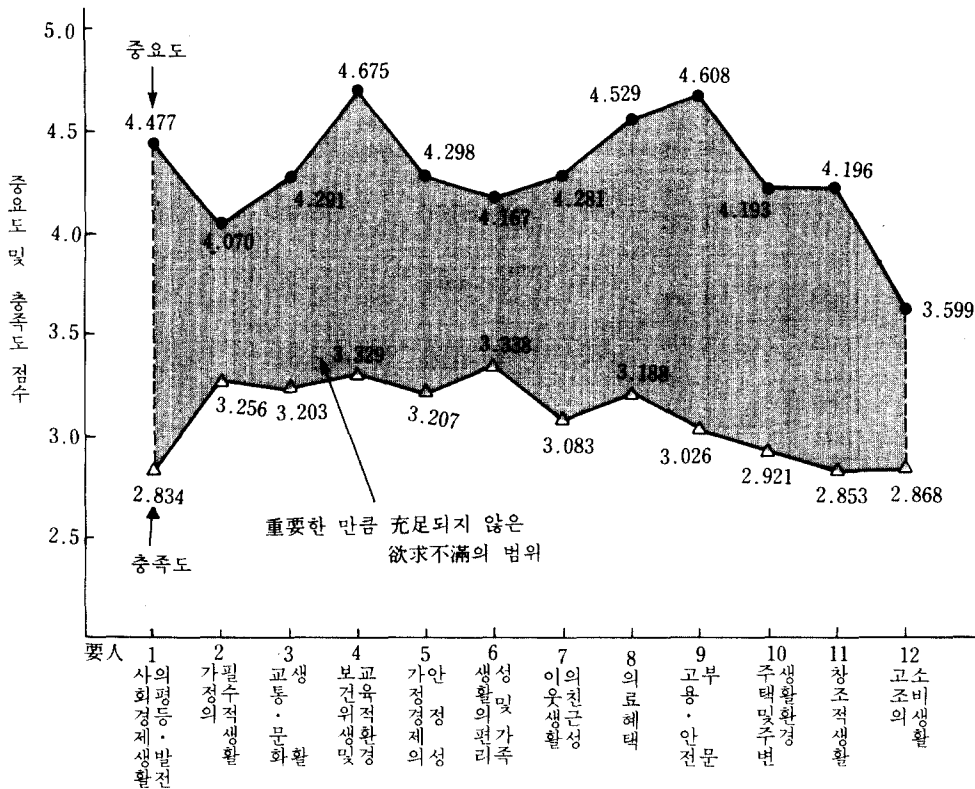
1) 要因別로 본 全體 生活欲求

[圖 6]에는 重要度와 充足度의 平均點을 이용하여 全體 生活欲求의 경향을 12要因別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重要度는 매우 높게 평가된 반면(M=4.036), 充足度는 그 水準이 훨씬 낮았다(=3.092). 重要度는 높는데 充足도가 낮을 경우 그 差異만큼 欲求 내지 欲求不滿이 커지므로 調査對象者들의 生活全般에 대한 欲求는 매우 강한 편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社會 · 經濟生活的 平等과 發展에 대한 欲求가 가장 크고 雇傭 · 安全部門과 保健衛生 및 教育的 環境에 대한 欲求도 매우 강하며 創造的 生活과 醫療惠

澤에 대한 生活欲求도 비교적 강하다.

반면 家庭의 必須的 生活에 대한 生活欲求는 가장 낮고 高度의 消費生活, 生活의 便利性 및 家族에 대해서도 낮게 나타났다. 대체로 보아서 이미 충족된 것으로 보이는 基本的 生活이나 施設部門(一次的 欲求)과 아직 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高次的 消費生活(高次的 欲求)에 대한 生活欲求는 매우 약한 반면, 國家나 社會가 個人을 위하여 欲求를 充足시켜 주어야 할 福祉部門 및 物質的 奉요(二次的 欲求)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Katona등⁹⁾은 經濟가 發展하게 되면 學校, 病院, 社會的 施設등의 公共面보다는 私的 生活의 풍부함이 먼저 달성되기 때문에 公共面의 貧困을 벗어나기 위하여 투자를 상당히 하여도 私的 生活에 비하면 劣惡하기 마련이며



[圖 6] 要人別로 본 全體 生活欲求의 경향

여기에서 個人의 國家나 社會에 대한 欲求不滿이 확대된다고 한 現象이 본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2) 社會經濟的 變因에 따른 生活欲求의 差異

5개의 社會經濟的 變因에 따른 각 집단별 生活欲求의 差異가 <表 5>와 <表 6>에 제시되어 있다. 5%수준 이하에서 유의한 差異를 보인 것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居住地域別 差異: 重要도와 充足도를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要因들을 보면 都市居住者들은 都市文明의 혜택없이 안되는 生活部門에 관련된 것들(要因 2, 3, 6, 8)이며 農村居住者들은 이웃生活的 親近性뿐이다. 社會·經濟生活的 平等과 發展, 雇傭·安全部分, 住居 및 周邊生活環境, 創造의 生活 要因에 대해서는 都市居住者들이 重要도를 높게 평가

한 반면 農村居住者들이 더 높은 充足感を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日本의 경우와도 유사한데²⁾, 이는 農村居住者들이 生活欲求의 상대적 비고를 都市居住者들에 準據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集團 및 자신들의 過去生活에 準據하여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② 性別 差異: 대부분 要因들의 重要도와 充足도를 女子들이 높게 평가하였고, 특히 家庭의 必須의 生活, 醫療惠澤 및 保健, 教育, 住居生活的 環境部門에 관련된 것들의 差異가 크다. 이와같이 女子들이 生活全般에 대하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더 많이 充足되어 있다는데 대해 家庭生活의 절실한 必要도가 어느정도 充足되어 있기 때문에 欲求不滿도 더 적고 生活에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겠다.

③ 年齡別 差異: 대부분의 要因에 대해 39세 이하

<表 5> 社會經濟的 變因에 따른 重要度の 差異

變因		要人		1		2		3		4		5		6	
		평균	t	평균	t	평균	t	평균	t	평균	t	평균	t		
居住地域	농촌	4.339	***	4.047	***	4.246	2.05*	4.604	***	4.302	.61	4.090	2.91**		
	도시	4.537	-4.40	4.119	-3.73	4.325	-2.05*	4.731	-4.50	4.296		4.236	-2.91**		
性	남자	4.445	2.15*	3.992	5.37***	4.275	-.73	4.646	2.21*	4.309	1.02	4.084	2.07*		
	여자	4.512	-2.15*	4.167	-5.37***	4.302	-0.73	4.707	-2.21*	4.287		4.208	-2.07*		
年 齡	39세이하	4.541	4.04***	4.139	4.35***	4.340	2.90**	4.715	3.22***	4.306	.12	4.223	2.56**		
	40세이상	4.423	-4.04***	4.008	-3.94***	4.250	-4.10***	4.635	-2.74**	4.295		4.118	-1.49		
所得	저소득층	4.426	4.27***	4.018	3.94***	4.235	4.61***	4.643	2.60**	4.279	-1.40	4.126	-3.09**		
	고소득층	4.545	-4.27***	4.129	-3.36***	4.352	-4.61***	4.711	-2.60**	4.319		4.123	-3.09**		
學歷	저학력층	4.432	5.10***	4.039	3.36***	4.251	4.61***	4.653	2.60**	4.293	-1.01	4.122	-3.09**		
	고학력층	4.581	-5.10***	4.139	-3.36***	4.381	-4.61***	4.725	-2.60**	4.309		4.268	-3.09**		

變因		要因		7		8		9		10		11		12	
		평균	t	평균	t	평균	t	평균	t	평균	t	평균	t		
居住地域	농촌	4.290	.26	4.470	2.34*	4.483	5.90***	4.117	4.05***	4.140	-1.77	3.515	2.99**		
	도시	4.274		4.575	-2.34*	4.704	-5.90***	4.251	-4.05***	4.239		3.663	-2.99**		
性	남자	4.303	.39	4.480	2.64**	4.577	2.02*	4.153	2.38*	4.184	-.36	3.545	2.56**		
	여자	4.258		4.581	-2.64**	4.642	-2.02*	4.235	-2.38*	4.209		3.657	-2.56**		
年 齡	39세이하	4.264	-.04	4.601	3.61***	4.686	4.10***	4.260	4.29***	4.254	2.34*	3.661	2.76**		
	40세이상	4.297		4.468	-3.61***	4.542	-4.10***	4.127	-4.29***	4.144		3.542	-2.76**		
所得	저소득층	4.315	.87	4.484	2.40**	4.527	4.90***	4.134	3.78***	4.137	-2.82**	3.540	2.17*		
	고소득층	4.243		4.580	-2.40**	4.697	-4.90***	4.260	-3.78***	4.262		3.685	-2.17*		
學歷	저학력층	4.321	2.87**	4.450	3.08**	4.550	6.07***	4.149	4.60***	4.134	4.53***	3.545	3.09**		
	고학력층	4.187	-2.87**	4.597	-3.08**	4.740	-6.07***	4.293	-4.60***	4.337		3.721	-3.09**		

*p<.05 **p<.01 ***p<.001

층이 重要度を 높게 평가했으나 充足度에 대해서는 40세 이상층은 社會·經濟生活 및 職場生活部門에 대하여, 39세 이하층은 家庭生活 및 交通文化生活에 대하여 더 높은 평가를 하였다. 따라서 39세 이하층은 社會·經濟生活의 평등 및 發展과 雇傭·安全部門에 대해 欲求不滿狀態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④ 所得別 差異; 重要도에 대해서는 거의 全要因에서 高所得層이 높은 평가를 했고, 充足도에 있어서도 要因 7, 9를 제외하고는 高所得層이 높게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所得이 主婦들의 더 나은 生活의 질의 결정에 관계한다고 한 문숙재⁹³⁾, 이기영등⁹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社會·經濟生活의 平等 및 發展에 대한 充足度는 두 집단간 差異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社會·經濟的 公平의 欲求問題는 화폐적 숫자의 크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意識의 문제이며, 低所得層이 오히려 相對的 貧困感을 덜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收入이 단지 所得이 낮은 階層에서만 그들의 生活의 質에 관계한다고 한 Liu⁹⁵⁾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農村住居者들 대부분이 都市住居者들보다 所得이 낮은 社會構造의 경향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⑤ 學歷別 差異; 要因 7(이웃생활 親近性)을 제외한 全要因이 高學歷層에 의해 重要度を 높게 평가받았는데, 이는 學歷이 높은 階層일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疏遠해지는(특히 都市의 경우)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充足度에서는 要因 1, 4, 7, 9에 대해서는 低學歷層

<表 6> 社會經濟的 變因에 따른 充足도의 差異

變因		1		2		3		4		5		6	
		평균	t	평균	t	평균	t	평균	t	평균	t	평균	t
居住 地域	농촌	2.890	***	3.088	***	3.044	***	3.324	-.37	3.236	1.70	3.287	-2.21*
	도시	2.792	3.20	3.390	-8.59	3.325	-7.65	3.332		3.185		3.368	
性	남자	2.823	-.43	3.161	***	3.141	***	3.281	-2.87**	3.198	-.10	3.278	-3.10**
	여자	2.846		3.358	-5.67	3.268	-3.48	3.379		3.216		3.392	
年 齡	39세이하	2.778	-3.06**	3.326	***	3.240	1.96*	3.303	-1.37	3.210	.23	3.345	.28
	40세이상	2.881		3.195	3.77	3.168		3.350		3.204		3.325	
所得	저소득층	2.816	-.63	3.049	***	3.125	-3.94***	3.325	-.30	3.118	-4.96***	3.256	4.24
	고소득층	2.867		3.489	-13.34	3.289		3.334		3.310		3.421	
學 歷	저학력층	2.870	***	3.161	***	3.170	1.99*	3.363	3.06**	3.186	-2.03*	3.312	-1.29
	고학력층	2.751	3.46	3.473	-8.39	3.275		3.248		3.252		3.381	
變因		7		8		9		10		11		12	
		평균	t	평균	t	평균	t	평균	t	평균	t	평균	t
居住 地域	농촌	3.181	***	3.081	***	3.130	***	2.947	1.30	2.907	2.32*	2.846	-.77
	도시	3.059	3.95	3.271	-4.23	2.947	3.39	2.900		2.811		2.888	
性	남자	3.018	-3.13**	3.074	***	2.994	-1.41	2.852	-3.42***	2.843	-.29	2.850	-.76
	여자	3.153		3.311	-4.09	3.018		2.993		2.863		2.887	
年 齡	39세이하	3.023	-2.11**	3.206	.59	2.943	-2.91**	2.897	-1.06	2.831	-1.06	2.865	-.06
	40세이상	3.135		3.175		3.105		2.943		2.872		2.871	
所得	저소득층	3.094	1.47	3.042	-6.27***	3.057	.24	2.853	-3.30***	2.800	-3.13**	2.767	-4.66***
	고소득층	3.071		3.354		2.996		3.014		2.916		2.982	
學 歷	저학력층	3.142	***	3.121	***	3.094	***	2.915	-.21	2.836	-1.61	2.838	-1.39
	고학력층	2.950	4.59	3.341	-4.21	2.874	3.47	2.930		2.888		2.993	

*p<.05 **p<.01 ***p<.01

이, 要因 2, 3, 5, 8에 대해서는 高學歷層이 더 높은 充足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高學歷層은 社會經濟的 平等과 雇傭部門 및 保健, 衛生, 教育環境등 生活環境部門에 대한 欲求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欲求樣相은 都市住居者들의 것과 매우 유사하므로, 前者의 欲求는 都市環境의 劣惡함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고 後者의 欲求는 高學歷에 맞는 社會的 待遇나 地位, 所得등이 기대만큼 充足되지 않고 있다는 認識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의 生活欲求에 대한 5개 變因들의 영향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經濟的, 社會的 不平等이나 不利益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農村住居者들, 低所得層, 低學歷層이 오히려 그 部門에 더 높은 充足도를

를 나타내었다. 또한 더 많은 要因들에 대해 相對的으로 더 높은 重要度を 부여하고 더 적은 要因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充足도를 갖고 있는 都市住居者들, 39세 이하층, 高學歷層은 그 만큼 生活欲求가 클 것으로 보인다. 女子들, 高所得層은 重要도와 充足도를 다같이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 生活欲求가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V. 結 論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生活欲求 경향을 파악하고 生活欲求의 要因構造 및 그에 대한 社會經濟的 變因들의 영향을 分析하기 위한 目的으로 고안

되었다.

生活欲求를 操作的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先行研究로부터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된 指標들을 65개 추출하고 問項化하여 質向紙를 작성한 후 事前調査를 통해 妥當도와 信賴도를 확보하였다. 標本抽出은 3段階集落抽出法으로 하였으며 分析에 사용된 標本數는 모두 1084인데(都市=614, 農村=470), 調査對象地域의 家口數比例로 뽑았다.

生活欲求의 정도는 각 指標에 대한 重要도와 充足度の 평가를 통해 측정되는데 重要도가 높는데 비해 充足도가 낮을수록 生活欲求是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生活欲求의 測定은 국민의 欲求狀態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nomi症의 改善를 위한 國家·社會의 政策決定에 重要하며 全般的인 生活水準이 어느 段階에 있는가를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研究結果중 重要的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전체적으로 重要도는 높았으나 그에 비해 充足도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生活에 대한 欲求不滿은 크다.

2) 전체적으로 重要도가 가장 높은 指標는 肉體的健康維持와 法的인 公平함이었고 가장 낮은 指標는 人口問題와 스포츠活動參與였다. 즉 高級화된 生活指標인 社會活動, 스포츠, 餘暇와 旅行등은 중요시하지 않는 대신 健康, 人權, 家計, 家族등 生活의 基本的인 要素를 더 중요시 하였다. 또 所得과 資産의 절대적 크기나 增加보다는 그 分配上의 公平함을 더 중요시 하였다.

3) 전체적으로 充足도가 가장 높은 指標는 豫算生活과 交通通信의 發達이었고 가장 낮은 指標는 國內外旅行과 所得分配의 公平이었다. 基本的인 家庭生活과 交通發達에 대한 充足도가 높은 반면 餘暇, 社會活動, 社會·經濟的인 公平, 福祉部門에 대한 充足도가 낮았다.

4) 社會·經濟的인 平等部門과 雇傭, 住居生活 및 環境部門에 관련된 指標들은 充足도가 낮은 반면 重要도는 높았다.

5) 充足도점수를 기준으로 要因分析한 결과 4개의 指標가 탈락된 61개 指標로서 12要因이 추출되었으며 全體變量은 50.251%였다. 要因 1의 共通變量은 51.68%로서 生活欲求分析에서의 重要性을 인정받았고 「社會·經濟的인 平等 및 發展」으로 명명되었다. 要

因 12는 「高度의 消費生活」이다.

6) 社會的, 經濟的으로 不平等한 地位에 있고 不利益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農村住居者들, 低所得層, 低學歷層이 오리지 그 部門에 대한 充足도는 높고 重要度評價는 낮았다.

7) 都市住居者들, 39세 이하층, 高學歷層은 많은 수의 要因들에 대해 重要도를 높게 평가하고 적은 수의 要因들에 대해 充足하고 있으므로 生活欲求가 큰 집단이다.

8) 女子들, 高所得層은 重要도와 充足도를 함께 높이 평가하였으므로 生活欲求가 가장 적은 집단이다.

9) 重要도와 充足도의 집단별 差異를 가장 많이 보인 要因은 要因 2(家庭의 必須的인 生活)이었다.

10) 高所得層, 高學歷層은 創造的인 生活 및 高度의 消費生活要因에 대해 重要하게 생각하고 또 充足도도 높았다.

11) 전체적으로 個人的인 능력과 관계된 生活의 私的部分보다는 國家社會의 政策과 관련된 公共部門에 대한 欲求가 크게 나타났다.

12) 전체적으로 여가, 여행, 취미생활등 高級화된 消費生活이나 創造的인 生活에 대해서는 重要도도 낮고 充足도도 낮았다.

13) 結論 10와 11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生活水準은 物質的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二次的인 欲求段階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個人生活의 相對的인 表出欲求, 比較欲求 및 社會的인 均等, 安全, 公正, 參與의 生活欲求들이 뚜렷이 노출되는 단계에 있다.

이상과 같은 結論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價値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또 標本抽出을 통한 調査對象者들의 年齡이 다소 편중된 한계점도 있다. 그러나 미흡한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표집하였고 광범위한 개인의 生活欲求를 측정된 결과가 家計 또는 國民福祉 推進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현재 상태에서의 生活水準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데 意義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中小都市人들의 生活欲求나 獨身者와 高齡者들을 포함한 다양한 生活欲求 또는 生活의 質研究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參 考 資 料

1. 坂本二郎, 幸福の經濟學, 東京, 潮出版社, 1968, p. 130.
2. 吉野政治, 生活樣式の理論, 東京, 光生館, 1984, pp. 22-23.
3. S. McCall,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2, 1975, pp. 229-248.
4. 吉野政治, *Op. Cit.*, p. 30.
5. 森本厚吉, 生活問題, 東京, 同文館, 1920. 一番ヶ瀬康子, 生活學の展開, 家庭學と社會福祉, 東京, ドメス出版 1984 pp. 178~188에서 재인용.
6. 博英社, 經濟學大辭典(第二改訂增補版), 1984, p. 1048.
7. J. Bradshaw, The Concept of Social Need. In N. Gilbert & H. Specht, Planning for Social Welfare, N. Y. Prentice Hall. 1977, pp. 31-50.
8. 村田沼治·丸尾直美·田關利明編, 福祉志向의 論理, 東京, 有斐閣, 1976, pp. 2-6.
9. J.K. Galbraith, Economics, Peace and Laughter. New York, American Library Inc. 1972, pp. 15-31.
10. Ben-Chieh Liu, Economic and Non-Economic Quality of Life: Empirical Indicator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Large Standard Metropolitan Areas.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36, No. 3, Aug., 1977, pp. 225-240.
11. Wolfgang Zapf, Social indicators: prospects for social accounting systems, *Social Science Information*, Vol. 11, 1972, pp. 243-277.
12. Augus Deaton, The Measure of Welfare: Theory and Practical Guidelines. *LSMS Working Paper*, No. 7, by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Oct., 1980, pp. 54-55.
13. 이정수; 家事勞動時間과 生活의 質 인식과의 관계 이화여대 생활과학 연구소, 생활과학 연구보고서, 1985, pp. 61-115.
14. 문숙재, 정은숙; 都市家庭의 生活의 質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권 3호, 1985, pp. 149-167.
15. 李基榮; 主婦가 인지한 生活의 質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권 3호, 1984, pp. 111-127.
16. 鮑戶 弘, 消費文化論, 東京, 中央經濟社, 1985, pp. 79-95.
17. Mario Bunge, What is a Quality of Lif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2, 1975.
18. 村田沼治·丸尾直美·井關利明, *Op. Cit.*, p. 14.
19. Angus Campbell and Philip E. Converse,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1972, p. 3.
20. US Department of HEW, in Kenneth C. Land, Seymour Spilerman, *Social Indicators Models*, ed., N.Y. Russel Sage Foundation, 1975, p. 15.
21. J. Muellbauer, Market and Non-market Employment Activity and Welfare Measurement. 1980, in Christiaan Grootaert, The Conceptual Basis of Measures of household Welfare and their Implied Survey Data Requirements, *LSMS (Living Standards Measurement Study) Working paper*, No. 19,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1982, pp. 3-5.
- 伊藤秋子, 生活水準, 東京, 光生館, 1977, p. 200.
22. W. Rodgers & Phillip E. Converse, Measure of the Perceived Overall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2, 1975, pp. 127-152.
23. 村田沼治·丸尾直美·井關利明編, *Op. Cit.*, p. 44.
24. 日本 經濟企劃廳 國民生活局, 國民生活欲求調査(1972, 1975, 1978, 1981) 및 國民生活選好度調査(1985) pp. 168-170.
25. 富永健一, 二基準方式(による福祉指標作成のこころみ-東京都のデータによる時系列分析-東京都 企劃調査局, 1972, pp. 16-17.
26. Ben-Chieh Liu,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the U.S. Metropolitan Areas*. 1970, Kansas city (Missouri), Mid-West Research Institute, May, 1975, p. 3.
27. Frank M. Andrews, Social indicators of Perceived life qual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 1974, pp. 279-299.
28. 金海東, 韓國農村生活指數研究-새마을 운동의 임팩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14권 2호, pp. 134-170.
29. 문숙재, 정은숙, *Op. Cit.*
30. 문숙재, 소연경, 家庭生活의 質 測定을 위한 예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 pp: 43-53.
31. 韓慶惠, 농가의 生活의 質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농가정책 석사학위논문.
32. 餘暇開發センタ, シツヤ-白書, 86, シツヤ-と女性の時代, 1986, pp. 20-23.
33. 日本經濟企劃廳 國民生活局, 國民生活選好度調査, 東京, 大藏省印刷局, 1985, p. 13.
34. 日本經濟企劃廳 國民生活局, 社會指標でみた 生活の質 動向指數, 1977.
- 山崎 進, 改訂消費者經濟學, 光生館, 1979, p. 86.
35. Ben-Chieh Liu,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the U.S. Metropolitan Areas*, 1970, Kansas city (Mis-

- souri), Mid-West Research Institute. May, 1975, pp. 3-5.
36. Mohamed Abdul-Ghany, Quality of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lderly, *HERJ*, Vol. 6, No. 1, Sep., pp. 38-47.
 37. Ruth E. Pestle, Thomas A, Cornille, Karal Solomon, Lifeslyle Alternatives,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Attitude Scale, *HERJ* Vol. 11, No. 3, 1983, Dec., pp. 175-182.
 38. Office of Management of Budget, The Report of the White House Conference on Youth, 1971, recited from Wolfgang Zapf, Social indicators; prospects for accounting systems, *Social Science Information*, Vol. 11, 1972, pp. 243-247.
 39. Office of Resarch & Monitoring (1972),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Quality of Life Indicators*. 金水燮, 社會開發計劃論, 1985, pp. 35-36 引用.
 40. 朴龍治, 生活指數의 測定,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15권 2호, pp. 78-94.
 41. 宮崎禮子·伊藤セツ編, 家庭管理論, 東京, 有斐閣, 1986, p 62.
 42. 能勢信子·小玉佐智子, 家庭經濟學 新版, 東京, 有斐閣, 1985, pp. 172-168.
 43. 大河内一男·籠山京, 新版 家庭經濟學 東京, 光生館, 1979, p. 221.
 44. 日本經濟企劃總 國民生活審議會 將來의 國民生活像, -20年後의 비젼-, 1965, pp. 52-53.
 45. 日本經濟企劃廳 國民生活局, 國民生活白書, 1968 生活水準指標, 伊藤秋子, 生活水準, *Op. Cit.*, p. 194.
 46. D. Gastil,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Nov., Dec. 1970, pp. 596-601.
 47. Raynaldo Martorell, Suggestion for Surveys of the Standard of Living in Developing Countries; Nutrition and Health Status Indicators. *LSMS Working paper*, No. 13, by The Wold Bank, Washington D.C. Feb., 1982, pp. 83-84.
 48. United Nations Statistical Office, Towards More Effective Measurement of Living, and Review of Work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Office (UNSO) related to Statistics of Levels of Living, *LSMS Working paper*, No. 4,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1980, pp. 57-58.
 49. J. Drewnowski, On Measuring and Planning the Quality of Life, Utigeverij Mouton Co., B. V., 1976. (鮮于惠, 社會指標의 開發 및 活用に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인용)
 50. OECD, Living Conditions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Policy Studies*, No. 3, 1986.
 51. UNRLSD, Report No. 4, Level of Living Index, July 1966(宮崎禮子, 家政經濟論, 東京, 朝食書店, 1983, p. 67인용)
 52. UN, The Report of the World Social Situation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Problem of Bal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1961. (伊藤秋子, 生活水準, *Op. Cit.*, pp. 191-192 인용)
 53. 國民生活ヤンた, 福祉水準의 地域別比較, 1973 (宮崎禮子, 1983, *Op. Cit.*, p. 68 인용)
 54. 富永健一, 二起草點方式による 福祉指標作成のニエロミ-東京都のデータによる時 系列分析-. 東京都企劃調整局計劃部, 1972.
 55. 坂本二郎, 幸福의 經濟學, *Op. Cit.*, pp. 159-166.
 56. Angus Campbell, Philip E. Converse, Willard L. Rodgers,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 Evaluation and Satisfaction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6, pp. 374-375.
 57. Angus Deaton, the measure of Welfare, *Op. Cit.*, p. 49.
 58. *Ibid.*, p. 50.(개인 복지에 관한 것)
 59. Christiaan Grootaert, The Conceptual Basis of Household Welfare and Their Implied Survey Data Requirement. *Op. Cit.*, pp. 38-39.
 60.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86, pp. 23-30.
 61. 保健社會部, 社會保障·社會開發研究(部門別 事業計劃), 1974, 12. p. 45.
 62. 日本經濟企劃廳 國民生活審議會, 社會指標, 1974. (鮮于惠, *Op. Cit.*, pp. 19-24 인용)
 63. 丸尾直美, 福祉의 經濟政策, 東京, 日本經濟, 1975, p. 33.
 64. E. Sheldon and K.C. Land, Social Indicator Models, 1972, in K.C. Land and Seymour Spilerman, *Social Indicator Models*, ed., N.Y. Russel Sage Foundation, 1975, pp. 22-23.
 65. K.C. Land and Seymour Spilerman, *Social Indicator Models* ed., *Ibid.*, pp. 24-26 (Organization of Social model.)
 66. Nester Terleckyj, Systemic analysis of multiple goals, in Nester Terleckyj, *Improvements in the Quality*. National Planning Association, Washington D.C. 1974, pp. 64-67.
 67. Nester E, Terleckyj. National goal output indicators and activities, 1971. In Karl A Fox,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Theory*, *Op. Cit.*, pp.

- 106-108.
68. NPA, National Goals Accounting Study; Goal Output Indicators, in Karl A. Fox, *Ibid.*, pp. 110-111.
69. OECD, Measuring Social Wellbeing. Paris. 1876. (鮮于惠, *Op. Cit.*, pp. 32-37 인용)
70. SWIGES, Strukturentwicklung d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von Einzelstaaten und Staaten-grup am Beispiel des Lebensstandards in EWG-Ländern, in EPA, The Quality of Life Concept, (金環東, 發展의 社會學, 文學과 知性社, 1980, pp. 178-179 인용)
71. UN, Towards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ST/STAT 18, N.Y., 1975. (鮮于惠, *Op. Cit.*, pp. 26-27 인용)
72.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Social Indicators III, (Social concerns Topics), 1981. (鮮于惠, *Ibid.*, pp. 39-40 인용)
73. US DHEW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conomic and Welfare), Towards a Social Report, Washington D.C., 1979. (鮮于惠, *Ibid.*, p. 16 인용)
74. 吉田正昭編, 都市環境と住まいの心理學, 東京, 彰國社, 1980, pp. 195-198.
75. 丸尾直美編, 福祉の經濟政策, *Op. Cit.*, p. 285.
76. 丸尾直美·熊谷彰矩編, 質の經濟學-アメニテイ社會の實現-, 東京, 同文館, 1981, pp. 195-198, p. 24.
77. Jacquelyn W. McCray and Savannah S. Day, Housing values, Aspiratiuon and Sataisfactions as Indicators of Housing Needs. *Hone Economics Research Journal (HERJ)*, Vol. 5. No. 4, June, 1977, pp. 244-754.
78. 橫山光子·大森和子, 新しい家庭生活を考える. 東京, 樂游書房, 1981, p. 94.
79. 金日坤, 韓國經濟發展論, 서울, 貿易經營社, 1986, p. 583.
80. 이상백, 김채윤, 韓國社會階層研究, 민조사, 1966, pp. 36-43.
81. 高炯一, 高等學校學生의 教育抱負를 결정하는 社會心理學的 要因의 探索,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1978.
82. 經濟企劃院, 한국의 사회지표, 1986, p. 59.
83. *Ibid.*, p. 82.
84. Raymond, A. Bauer, Social Feed Back.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2, Sep., 1976, pp. 180-192.
85. 吉野政治, *Op. Cit.*, pp. 102-104.
86. 岩田幸基, 消費構造の知識, 일본 經濟新聞社, 1976, pp. 103-111.
87. Angus Deaton, The Measure of Welfare. *Op. Cit.*, pp. 49-50.
88. Frank M. Andrews, Social indicators of Perceived Life Quality. *Op. Cit.*, pp. 1-26.
89. 丸尾直美, 生活の質と社會指標, 村田昭治共著, 福祉志向の論理중에서, 東京, 有斐閣, 1976, p. 12.
90. Kenneth C. Land, Seymour Spilerman,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Op. Cit.*, pp. 25-27.
91. G. Katona, B. Strumpel and E. Zahn, Aspiration and Affluence. 石川弘義, 原田勝治譯, 慾望の心理經濟學, タイヤモンド社, 1977. p. 255.
92. 鮑戶弘, 消費文化生活, *Op. Cit.*, pp. 88-90.
93. 문숙재, 정은숙, 都市家庭의 生活의 質에 관한 研究, *Op. Cit.*
94. 李基榮, 主婦가 인지한 生活의 質에 관한 연구, *Op. Cit.*
95. Ben-Chieh Liu, Quality of Life: Concept, Measure and Results.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34, No. 1, Jan., 1975, pp. 1-14.
96. Meena Acharya, Time Use Data and the Living Standards Measurement Study. *LSMS Working Paper*, No. 18. The World Bank, Washington, D. C., Jul., 1982, pp. 22-40.